

편입학제도, 이렇게 본다

고등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

이 태 건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교무처장



교육계에 개혁의 바람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것은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다. 고등교육계에도 시장경제의 원리도 도입되어 대학간 자유경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교육이라는 상품의 제공자로서 대학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앞다투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학이나 학과 선택의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부여받고 있다. 결국 고등교육의 수요와 공급에서 자동조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셈이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전과와 편입학 제도의 전면 확대이다. 정부 당국은 그 동안 별 성과없이 명목만 유지되어 오던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대학 당국에 자율성을 폭넓게 부여함으로써 그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이 다 그러하듯이 전과와 편입학 제도의 확대에도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아울러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억지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제도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정책적 지혜일 것이다. 전과와 편입학 확대 실시의 긍정적인 효과는 교육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 및 사회심리적인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학 및 학과 선택에서의 다양성과 개방성의 확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나치게 중앙에 의하여 통제·관리됨으로써

획일성과 폐쇄성을 탈피하지 못하였다. 대학들은 정부 주도의 단일한 제도 아래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생들의 경우, 일단 소속 대학과 학과가 결정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될지라도,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란 고작해야 대학을 중퇴하고 재수의 길을 걷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성에 맞지도 않는 학과에서 내키지 않는 대학 생활을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학간에, 학과간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입시전쟁을 다시 한번 치러야 했다. 입시 성적이라는 표준화된 단일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대학이나 학과라는 집단구성체의 동질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계급사회의 등장을 방불케 하였다. 그 동질성에 따라 매겨진 등급이 구성원들의 취업과 사회생활에 평생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이 폐쇄적 경쟁체제가 규격화된 공정성을 강요하고, 학생선발과 대학간의 이동을 정지시키고 고정화한 것이다.

전과와 편입학의 확대 실시는 이 폐쇄성의 벽을 흔들어 허물고,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진로 선택에 대한 재시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의 약 70%가 어떤 형태로든 학교를 옮기고 싶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편입이 약 50%, 재수가 약 20%였다. 전문대학 재학생들의 경우, 거의 모두가 짧은 재학기간으로 인한 아쉬움과 차별적인 사회적 대우에 대한 불만으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과나 편입학 제도는 학생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적 및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적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학이나 학과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던 학생이 그 잘못된 선택을 고치고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단지 재수뿐이어서 한창 귀중한 젊은 시절을 한두 해 허비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집과 가까운 곳에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는데도 성적 때문에 원치도 않는 다른 지방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자취나 하숙을 해야만 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이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편입학을 통하여 이러한 불편과 낭비요인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에서 등록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경우, 휴학생이나 자퇴생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등록금 손실을 편입학생 모집을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갖는 효과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대학들은 재학생들의 타고 편입학으로 인한 손실을 막고, 다른 학교 재학생들을 자기네 학교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며,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앞다투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문호를 활짝 열어젖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획기적인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거의 언제나 정원에 가까운 학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심리적으로 볼 때 편입학 제도

의 확대 실시는 대학과 학과 사이의 서열화로 인한 사회심리적 갈등 가능성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하여 원하는 학과나 대학에 새로이 들어간 학생은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 커다란 부산물을 함께 얻게 될 것이며, 이로써 더욱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편입학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96년도 이후의 일로써 이제 3년 남짓 되었다. 그 동안 이 제도에 대한 편견과 물이해로 대학 내부에서도 일부 거부와 반발이 없지 않았다. 학습 분위기의 혼란, 교육 여건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타성화된 엘리트주의와 배타적 폐쇄성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소속 학생들의 우수성이 곧 그 대학의 우수성으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보다 수준 높은 학생을 확보하려는 대학의 의지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학 지원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시기가 오면, 대학들은 빗장을 열고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학의 학생 선발권보다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더 커지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는 신입학, 편입학, 시간제 학생제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확보해야만 대학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편입학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편입학 제도의 확대 실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들이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전공 수학 능력의 미흡, 학생 개인의 다양한 소양에 상응하는 학사관리와

행정처리의 적절성 부족, 편입생들에 대한 복지 혜택의 미비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 확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학들로 하여금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지 않은 채, 확대 실시만을 서두른 지난 정부의 성급함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대학 당국의 개혁 의지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시작단계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므로써 이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는 일은 각 대학과 학생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교육은 자기 발전과 신분의 상승적 이동을 위하여 선택하는 필수 사항일 수 있다. 보다 질 좋은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대학의 문호 개방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대학은 상아탑 속의 폐쇄된 고립 속에서 나와 사회에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의 입시라 불리는 대학 편입학 제도는 그 하나의 방도로서 그 역할과 기능의 장·단점을 검증받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태건/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한국 국민윤리학회 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주요 저서로 『마르크시즘의 변용』, 『가치와 사회』(공역) 등이 있으며, "마르크스의 사회인식 체계에 관한 연구",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경제운동 분석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